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5·18혁명 모욕한 자유한국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탄핵 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자유한국당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지난 해 6·13 전국지방자치...

현직 대통령이 연(連)인원 2천 만명이 넘는 촛불민심과 촛불혁명,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의...

국민과 역사 앞에 그런 엄청난 잘못과 고통을 주고도 적당히 얼 버무리고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안...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가 쓴 어른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에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보여'라고 어린 왕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은 폭동이다. 5·18 유공자는 종북 좌파 정부가 만들어낸 괴물집단으로 국민 혈세를 쓰고 있다 등 발언을 한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의 제명 문제로 국회와 온 나라가 소란하다.

특히 주제 발표자 지만원 은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개입해서 일으켰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그 주장이 허무맹랑한 허위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었는데도 계속 주장하고 그 주장을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후원하고 응원하고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국회 의결로 설치된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자유한국당은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개입해서 일으켰다는 주장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 우겨대고 공개적으로 선동하고 다니는 지만원을 추천하려고 하면서 일 년 정도 5·18특조위 구성을 방해해 왔다.

그러한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성격과 분위기에 편승해서 지만원을 국회로 초대해서 그러한 주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망석을 갈아주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있고, 500만 야전군 의장'이라는 해괴한 타이틀을 주제 발표석 앞에 붙여 놓을 수가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국유 보수 병진 수구, 탄핵 무효와 좌파 적잖을 주장하는 태극기 부대를 의식해서 국민과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과 망동을 용인하고 방조하는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에 물졌다. 탄핵 당했다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과 드루킹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요사이 자유한국당의 조금 지지율이 올랐다고 이미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 역사적 판단이 끝난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다양성의 일환이 아니고 역사 왜곡, 헌법 부정,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있을 수 없는 폭거(暴擧)다.

민약 어느 개인이든, 어느 정당이나 세력이 3·1혁명과 4·19민주혁명을 3·1운동은 폭동이다, 4·19는 폭동이다'고 계속 주장하고 다니고, 그 사람을 국회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려고 하고, 국회

로 불러 들어서 공청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주장하도록 만들어 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그 개인과 그 집단, 그 정당은 정신이 정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다. 마치 제 정신이 아닌 사교(邪敎)의 맹신자(盲信者) 같은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지금 이 어느 시대인가 21세기 국민이 주인임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시대, 민주주의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300여명의 무고한 생명을 바다에 희생시킨 세월호 사건과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촛불혁명과 현직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세계인 부러워하는 민주화를 성숙시켰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어정정한 궤변과 합리화로 본질을 숨기고 넘어가는 정치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과 드루킹 사건으로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자유한국당은 자만해서 안된다. 국민과 역사 앞에 좀 더 겸허하고, 특히 진실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무섭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 국민은 깨어있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있다. 특정 지역의 여론과 지지를 의식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서 오만과 망동을 펼쳐서는 안 된다.

본질을 외면하고 일시적인 임기응변으로 대응한다면, 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난국(難局)에서 파산하고 치욕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제1야당 공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 5·18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마인드와 자세는 국민적인 탄핵 감이다.

社說

조합장 선거 과열 막아야 한다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도 전에 과열·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니 걱정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천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대검찰청 공안부(오인서 검사장)에 따르면 지난 28일 현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총 82명이다.

2015년 1회 선거를 앞둔 동일한 시기와 비교하면 22.4% 증가했다. 검찰은 입건자 중 3명을 재판에 넘겼고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총 1천343명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인 만큼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총 1천334명을 일

견해 847명을 재판에 넘겼고, 그 중 81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번 2회 선거를 앞두고 적발된 범죄는 금품선거 사범이 45명(54.9%)으로 가장 많았다. 1회 선거에서도 금품선거 사범은 전체 선거 사범의 56.1%를 차지했다.

전국동시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의 조합장 선거 사범 중에서도 금품선거 사범이 86.4%에 이르렀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 금품 살포행위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설 연휴 기간에 금품 살포행위나 경쟁후보자 매수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금품선거나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 수사대상 범죄로 삼아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검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孝當竭力

孝當竭力

▷ 뜻: 부모(父母)를 섬길 때에는 마땅히 힘을 다하여야 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화재 시 생명줄,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자

완강기란,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이다.

완강기는 현행법상 2층 이상 다중이용업소와 3~10층까지의 일반 건축물에 설치돼 있다.

최소 25kg 이상의 하중을 받아야 내려가고 최대 무게는 150kg까지 사용 가능하다.

보통 화재 발생 시 계단으로 대피하면 되지만 화재 발생 지점이 아래쪽이라면, 연기는 계단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질식하

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은 완강기를 이용한 대피법이다.

완강기 사용법은 첫째,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둘째,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셋째, 완강기 벨

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마지막으로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가면 된다.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인명피해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형준 / 곡성119안전센터 소방사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换位思考' (Switching Perspectives) featuring two women and the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 It includes a quote: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Thinking about others once from the other person's perspective, won't we be more considerate and respectful?).